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마태복음 16:18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 모두가 갈 것입니다. 누구도 2019년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걸어가면 해피엔딩의 2019년도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가 585장 1, 2)

루터 앞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을 자기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잘 싸우시는 대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내 힘만 의지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목자요 대장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어떤 문제에도 100전 100승이요 반드시 해피엔딩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해피엔딩이고 사람이 주인 되면 언해피엔딩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소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고 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 또 강조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 주인 말을 잘 듣는 교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마 16:18a)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승리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패배도 있었습니다. 패배 때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수 9:14)**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한 일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주인 삼고 올 한 해의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540장 1절)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 내세우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주인 말을 잘 듣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2. 주인에게 굴복하는 교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a)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는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서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께 굴복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목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교회를 향해 땅 끝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단지 내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뿐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3. 주인의 능력 드러내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을 주인 삼은 교회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b) 주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브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지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시련 앞에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주인을 의지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6~18)

풀무불속에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주인에게 굴복하는 교회입니다. 주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권세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며 충분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주님이 주인이시면 됩니다.

○ 나눔의 시간 ○

1.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2.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3.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4. 2019년을 맞아하여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이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